

미리가본 西紀 2000年

이번號에 紹介되는 西紀 2000年은 한마디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거짓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도의 現實化는 우리나라 技術만으로도 1995年이면 可能하다는 事實이 K社와 S社에 의해 確認되었다.

컴퓨터 王國

西紀 2000年은 「컴퓨터 王國」이다. 人間의 衣食住가 어느 것 하나 컴퓨터와 關係되지 않은 것이 없다. 컴퓨터는 人間의 가장 忠實한 伴侶가 되어 있다.

主人을 알아보고 對話하며 主人을 위해서 봉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家庭이 지금의 電話처럼 컴퓨터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官廳·銀行·市場 등과 이어져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 이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살아가기조차 어렵다.

컴퓨터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에 主人의 起床을 알리는 일로 시작된다. 主人들이 일어나 보면 부엌에는 밥과 찌개가, 그리고 목욕탕에는 따뜻한 물이 준비돼 있다.

1986年代를 살던 사람들은 꿈같은 이야기를 이라고 하겠으나 이 정도의 일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컴퓨터와 연결돼 있거나 自

動 裝置가 붙어있는 機械가 지난밤 主人의 指示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침 食事が 시작되면 컴퓨터는 출근 및 등교준비를 함과 동시에 지난밤 사이에 일어난 크고 작은 國內外 뉴스중 主人이 必要로 하는 것만을 골라 TV畫面을 통해 전해준다.

이와함께 主人의 하루 일과를 다시 알려줌으로써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1986年을 살던 사람들의 努力으로 延生한 「知能컴퓨터」가 登場한 것이다. 主人들이 아침 食事を 끝내고 출근 및 등교하여 집이 비면 컴퓨터는 忠實한 가정부가 된다.

로봇에게 指示하여 집안 청소를 끝내고 집안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상황에 따라 112, 113, 119등의 電話을 利用하여 크고 작은 事件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방문객에게는 主人의 행방을 알려주고 찾아온 目的을 기록하여 둔다. 또 긴급을 要하는 內容은 즉시 主人에게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主人이 집을 비운 사이에 걸려오는 電話도 마찬가지다.

西紀 2000年에는 편지도 컴퓨터를 통해 주고 받고 있다. 「電子우편」으로 불리우는 이 制度는 상대방이 보낸 편지가 컴퓨터에 記憶되는 것이다. 電話가 電話番號를 돌려 通話가 되듯이 컴퓨터에도 番號가 있어 편지를 보낼 수 있

- …………西紀 2000年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앞으로 14年 동안 科學文明은 지……○
- …………난 1世紀에 버금가는 發展을 가져와 西紀 2000年에는 상상치도 못한 事實……○
- …………들이 現實化될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
-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發展된다는 것인가. ……………○
- …………本誌 編輯者는 14年을 건너뛰어 西紀 2000年으로 달려가 보았다. ……………○
- …………西紀 2000年. 編輯者가 달려간 西紀 2000年은 과연 1986年을 살던 사람……○
- …………들이 야단을 떨만도 했다. 한마디로 發明科學文明 王國을 이루고 있었다. ……○
- …………西紀 2000年의 모습을 스케치해 보았다. ……………○
- …………編輯者 註…………○

는 것이다.

컴퓨터는 主人의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記憶한다. 主人이 돌아오면 모든 門이 自動으로 열리고 닫힌다. 主人이 집안에 들어서면 기본적인 건강상태도 알려준다.

『主人님 과로하셨군요. 일찍 쉬셔야겠습니다.』

『主人님 과음하신것 같군요. ××藥을 두알 정도 드시고 주무십시오.』

『主人님 건강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는 귀찮은 存在로 밀려나기도 한다.

말하는 機械

西紀 2000年의 機械는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지 못하면 機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계도 말을 하고, 냉장고도 말을 하고, 침대도, 출입문도, 전자렌지도, 세탁기도, 재봉틀도, 자동판매기도, 영어사전도, 장난감도, 담배곽도 말을 한다. 심지어는 양복 및 구두까지도 말을 한다.

1986年만 해도 말하는 機械는 시계·냉장고·전자렌지·자동판매기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꼭 필요한 몇마디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西紀 2000年의 機械들은 사전에 나온 단어는

거의 記憶하고 있다. 한마디로 꿈의 時代가 열린 것이다.

시계를 보고 「몇시쯤 됐지?」하고 물으면 「7시입니다.」하고 대답하는가 하면, TV를 보고 「지금 뉴스를 보고 싶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뉴스를 하고있지?」하고 물으면 그 시간에 뉴스가 있으면 즉시 뉴스 프로가 畫面에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主人님 뉴스는 5분전에 방송된게 가장 빠른 것인데 그거라도 괜찮으시겠는지요?」하고 대답한다.

主人이 괜찮다는 대답을 하면 녹화된 프로가 畫面를 통해 나온다. 또 「소리를 크게」하면 스피커 소리가 커지고, 「더 밝게」하면 畫面이 밝아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이 드는 즉시 TV를 끄거라.」하고 말하면 「네, 틀림없이 주무시는 즉시 TV를 끄겠습니다. 主人님.」하고 복창까지 한다. 명령된 내용을 잘 알아들었다고 복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主人이 잠이 들면 즉시 꺼진다. 그런데 이 같은 복창 및 명령 복종은 TV뿐만 아니라 모든 機械가 마찬가지다.

모든 機械가 말을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아니냐는 것이 1986年代의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걱정할 것이 못된다. 컴퓨터가 主人의 기분을 미리 알아내어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編輯室>